제14강 불교의 자연관 [그룹 프로젝트]

(1교시) J_stJo01_031213_2_01

1. 초기 불교의 자연관

① 자연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practical behavior toward nature)

'불살생(不殺生, ahimsa)'의 계율.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불건전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나쁜 업을 쌓는 것이고 또한 모든 생명이 있고 정식이 있는 존재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고통으로부터 움츠려들기 때문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사람과 동물 뿐 아니라 식물, 종자, 심지어 물과 흙까지도 정식이 있다고 간주되었고 비구와 비구니들은 식물과 종자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명확히 금지되었다.

② 자연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nature)

자연도 궁극적으로 고통과 죽음이 있고 영속하지 못하기에 불만족스럽지만 불교의 일차적 영적 목표는 현재 자연 파괴의 주 원인인 욕심과 이기심의 제거이므로 자연 파괴를 유도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다.

2. 대승불교의 자연관

대승불교의 입장에 따르면, 만일 모든 존재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상호의존적이라면, 각각의 존재는 어떤 양식으로든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어떤 한 존재가 무엇을 하건 간에 그것은 모든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의 생태 이해는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서 **상생의 생태학을 지향**한다. 즉 연기에 대한 사무친 통찰을 통해 태어난 보살적 인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살적 인간, 이타적 인간이란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을 말하며, 그는 곧 무아를 실천하는 존재이며 물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2교시) J_stJo01_031213_2_02

3. 환경운동의 주요이론과 불교의 세계관

① **생태학자 베리 코모너의 생태학적 접근:** "지구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이며 아무 것도 증감하지 않고 전체로서는 변화가 없다. 현대의 산업적 경제 체제의 생존 방식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 **철학자 네스:**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전체론적 세계관으로서의 근본적 변화가 현재 환경 위기 상황을 타결할 수 있다."고 하여, '생태주의적 평등주의'와 '큰 자아 실현'을 주장했다.

심층 생태주의에 대한 비판들

.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어쩌면 공허한 주장으로만 끝나고 어떤 구체적 행위를 끌어내지는 못한다.

. 환경파괴의 주범이 결국 인간이라는 인간혐오주의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

. 급진적 심층 생태주의는 이른바 환경 파시즘, 폭력 사용의 정당화 등으로 이어진다.

. 불교를 환경운동의 패러다임으로써 주목하는 사람들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인간중심주의, 인간의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라 보고 그 대안을 불교적인 사유에서 찾는다. 그러나 **자연이 파괴된다라는 인식 역시도 인간중심적인 사고**라고 지적한다.

4. 실천으로서의 불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환경위기는 자원을 무한하다고 단정하고 정복과 지배, 풍요를 좇고 거대함을 추구하며, 속도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업보가 오늘의 이러한 오염과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토대로 한 전향의 의지**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저항하고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고 살피는 운동이고, 또한 수행을 통해 자연의 근본을 통찰하며 생활양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수많은 생태학자들은 이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양사상의 깊이와 개인의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큰 비전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사상과 기독교 전통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했지만, 불교사상과 동양사상이 그러한 요구에 대답을 해 줄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큰 과제이다.